

수능국어

2020^판

짜장

원리와 유형

독서 편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와 유형문제 제시
- 2019/18 수능형 고난도 문제 수록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수능국어 **짜장**

표지 안쪽

수능국어

2020^판

짱

원리와 유형

독서 편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와 유형문제 제시
- 2019/18 수능형 고난도 문제 수록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수능국어 짱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 서초고를 거쳐 현재 이성호 수능/내신 국어 연구
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짱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산문문학편> <독해편> <문법/화법/작
문편> 집필 (수능국어 짱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해/논리
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 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수능국어 짱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짱 원리와 유형 - 독서 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수능국어 짱 원리와 유형 신판에 붙여

2019년 새로운 입시 체제와 신교육과정에 맞춰 새롭게 만든 국어 짱 원리와 유형 신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실어 네 권의 책으로 제시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실전모의고사 등의 다섯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국어 영역 독서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 유형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집중되고 있는 수치적 추론 문제 유형을 독립시켜 이 유형의 문제를 대폭 싣고 풀이하였습니다. 또 지문마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를 넣어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주제의 형성 원리, 조직의 과정, 논지 전개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능국어 짱 원리와 유형’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차례

제1부 독서의 원리와 유형 문제

OE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독서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8

1. 논지 전개 · 진술 방식과 주제 27

유형문제1-1	한국 연극과 마당극, 극예술연구회	70
유형문제1-2	민주주의 한국의 청사진, 김태길	73
유형문제1-3	옛 그림의 원근법, 오주석	76
유형문제1-4	한국 전통 음악의 미의식, 현행복	78
유형문제1-5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진다, 헨리 페트로스키	81
유형문제1-6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임영태	83
유형문제1-7	권력의 이동, 앨빈 토플러	86
유형문제1-8	네트로피 문명, 장희익	89
유형문제1-9	러시아와는 학제적 접근이 최적, 김영식 외 5편	91

2. 전제 · 논거 · 논박 및 결론 96

유형문제2-1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 노웅희 · 박병석	111
유형문제2-2	언어와 민족 문화, 강산향	113
유형문제2-3	과학 윤리 · 생명 윤리, 송상용	116

3. 문단의 성격과 관계 118

유형문제3-1	사람과 파리는 닮은꼴, 조홍섭	134
유형문제3-2	한국 근 · 현대사 역사학의 흐름, 한영우	136
유형문제3-3	가이아 - 사이버네틱스, 러브록 외 1편	138

4. 단어(개념)의 갈래와 관계 140

유형문제4-1	도덕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손봉호	151
유형문제4-2	정보 사회와 인간 생활, 정범모	153
유형문제4-3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인간 과학, 박성룡	156
유형문제4-4	국어의 순화, 김석득 외 1편	159

5. 어휘의 의미와 관련 성어, 속담 161

유형문제5-1	과학과 윤리, 김용정	177
유형문제5-2	말, 세상을 그려 낸 그림, 삼재기	179
유형문제5-3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F. 카프라	182
유형문제5-4	북한의 말과 글, 남성우	185

6. 제시된 내용의 사실적 파악 189

유형문제6-1	현대 미술의 이해, 강미정	210
유형문제6-2	양성성에 관하여, 정진경	213
유형문제6-3	국사 교육이 죽어간다, 한영우	215
유형문제6-4	현대 사회의 의의, 고영복	218

차례

7. 제시되지 않은 내용 미루어 알기	221
유형문제7-1 전통문화와 대중 문화, 이상희	249
유형문제7-2 여우와 신포도, 이어령	252
8. 관점 · 입장 · 태도 · 의도 알기	256
유형문제8-1 맨 처음 생명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로버트 사피로	270
유형문제8-2 무장동학당 포고문, 전봉준	272
9. 제시된 글에 대한 비판	275
유형문제9-1 한국을 국제 물류 거점으로, 송희연	299
유형문제9-2 사람의 어제, 오늘 내일, 레원 리키	302
유형문제9-3 한자를 쓰는 것이 왜 문제인가, 송영상	305
유형문제9-4 엽기 신드롬을 부채질하는 것, 이인식	309
유형문제9-5 치도약론(治道約論), 김옥균 외 1편	312
1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315
유형문제10-1 박수근의 예술, 박용숙	343
유형문제10-2 왜 현대인은 병에 잘 걸리는가, 이인식	346
유형문제10-3 한반도, 일본열도와 정면 충돌, 조문섭	349
유형문제10-4 영산회상과 시나위, 권오성	352
11. 수치적 추론	355
유형문제11-1 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372
유형문제11-2 실업률 통계의 한계는? 최진희	375
유형문제11-3 광학현미경의 원리, 곽효길	378
유형문제11-4 메밀꽃 필 무렵의 경제학, 박찬선	381

제2부 국어 짝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388
---------------------------------------	------------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쑥쑥쑥쑥쑥** 올라갑니다.

☞ 2019학년도 수능능력시험 독서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모든 지문의 해설

1.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지문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글의 구조와 논지 전개 방식, 주제가 형성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문단의 주제를 빈 칸으로 두어 주제 작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어휘클리닉

평소 어휘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수능이나 지문 이해에 꼭 필요한 어휘의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나. 제1부 독서의 원리와 유형 문제

수능국어 향	출제 경향	
수능국어 향	원리	
수능국어 향	사고 방법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련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국어 짱 원리로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문제]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다. 제2부 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분석적 글읽기의 방법

다음은 글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글뿐만 아니라 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쓰기 영역을 해결하는 데도 좋은 지침이 되므로 각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읽고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2단계 글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규칙들

- 4. 필자가 사용한 기본 단어들을 해석하여 필자의 개념을 따르라.
- 5. 중요한 문장들을 찾아내고 필자의 주된 요지를 파악하라.
- 6. 논리적 관련이 있는 문장들을 찾아내고 필자의 논증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문장들로부터 논증을 구성하라.
- 7. 필자가 해결한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판별하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필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라.

1단계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규칙들

- 1. 글의 종류와 제재에 따라 이론적인 글과 실천적인 글로 분류하라.
- 2. 글 전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라.(가주제)
- 3. 필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규정하라.(주제)

제1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독서의 원리와 유형문제

3단계 지식을 전달해 주는 글을 비평하기 위한 규칙들

- A. 올바른 비평을 위한 기준
 - 8. 필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중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것을 비판하라.
 - 9. 필자가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라.
 - 10. 비논리적인 것(오류)을 지적하라.
 - 11.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주장, 분석이나 설명이 불충분한 것을 지적하라.
- B. 올바른 비평을 위한 유의 사항
 - 12. 글을 완전히 분석하고 해석하여 이해한 다음, 찬성, 반대, 중립 태도를 분명하라.
 - 13. 주요 논점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 말라.
 - 14. 비평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충분한 근거를 들고, 지식과 의견을 확실히 구별하라.

OE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독서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①약속과 다른 계약의 법률 효과	머리말
②계약이 발생시키는 채권과 채무 및 변제의 개념	
③채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예	
④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강제 집행	
⑤이행 불능인 경우의 채무자의 의무	본문
⑥이행 불능인 경우의 채권자의 계약 해제	
⑦채권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권	

➡ 약속과 다른 계약의 개념을 밝힌 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합치하다 : 의견·주장 등이 서로 일치하다
- 이행하다 : 실제로 행하다. 말과 같이 하다.
- 인도하다 :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다.
- 구애받다 : 거리끼거나 얽매임을 당하다.

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②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③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④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

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⑦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라는 구절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가]라 한다.'라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법률 행위가 모든 법률 효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추론은 잘못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라는 구절과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구절로 보아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라는 구절로 보면 ㉠은 매도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구절로 보면 ㉡은 원상회복 청구권이 되므로 채무자의 의사 표시와 관련이 없는 권한이다. ③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구절로 볼 때 ㉡은 원상회복 청구권이고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인데 이는 이행 불능이므로 이행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구절로 볼 때 ㉡은 원상회복 청구권이므로 동일한 계약의 효과가 아니다.

✓ **해답** ⑤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이행 불능 상태가 되어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③ '갑이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④ 매매 계약 이후에 그림이 소실되어 이행 불능 상태가 발생했다. ⑤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구절로 보면 '을'은 매매 대금 반환의 책임을 져야한다.

✓ **해답** ①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지문의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라는 구절과 <보기>의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증여도 증여 자체가 채무가 되며 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보기>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라는 구절과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라는 구절에서 증여와 유언의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임이 드러나 있고 매매는 지문의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

와 ‘사겠답’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등의 구절에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임이 드러나 있다. ② 증여는 <보기>에서 계약이라 하였고 계약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지문에 드러나 있다. ④ <보기>의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⑤ <보기>의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 해답 ③

2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어휘와 문맥적으로 같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장 원리로 정답 찾기 ㉠의 주어가 ‘판결’이므로 ‘나올’은 추상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상적 의미가 주어진 것은 ‘실험 결과가 나왔다’이고 여기서의 ‘나왔다’는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겼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 오답 비루기 ② ‘태도를 취하여 겉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이다. ③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④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라는 의미이다. ⑤ ‘상품이나 인물 따위가 산출되다.’라는 의미이다.

✓ 해답 ①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②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⑥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㉔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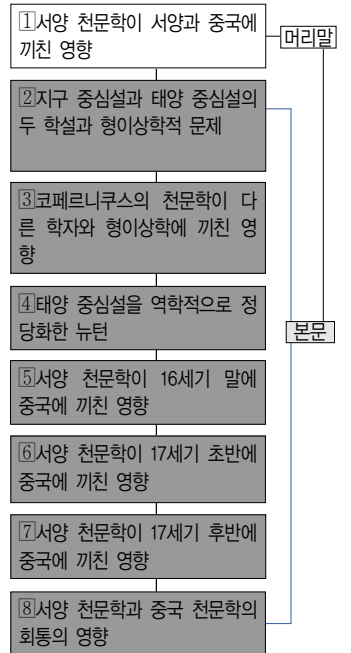
③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A] ④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⑤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㉕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㉖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⑥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❶ 지구 중심론과 태양 중심론의 서양 천문학을 소개하면서 형이상학의 변화를 제시하고 중국의 천문학에 끼친 영향을 시대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합치하다 : 의견·주장 등이 서로 일치하다
- 이행하다 : 실제로 행하다. 말과 같이 하다.
- 인도하다 :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다.
- 구애받다 : 거리끼거나 얽매임을 당하다.

다.

^[7]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⑥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8]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 질점 :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 구 대칭 :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 다음은 밑줄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 개념이 소개 되어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라는 구절로 보면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에 대한 서술은 없다.

✓ **해답** ②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서양의 경험적 추론이 중국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라는 구절과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현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⑤

29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④는 적절하다.

● 오답 바꾸기 ①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②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라는 구절을 볼 때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이론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어긋난다. ⑤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케플러의 우주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해답 ④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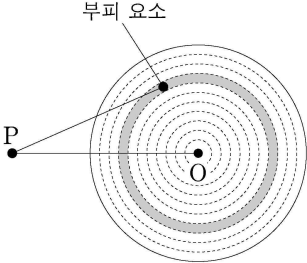
● **장 원리로 정답 찾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라는 구절로 볼 때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⑤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 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 ⑤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지문에 제시된 원리와 <보기>에서 제시된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이라는 구절은 지구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보다 작으나 만유인력은 같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똑 같은 질량 m 이 지구에서 갖는 비중은 태양에서 갖는 비중보다 높아지므로 지구에서 갖는 m 의 만유인력은 태양에서 갖는 m 의 만유인력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배류기** ①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질량이 커지는데 지문의 '그(만유인력)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구절을 적용해 보면 적절하다. ③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구절로 보아 서로 다른 두 물체의 만유인력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보기>의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중심의 구 껍질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②

3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진작(振作)할
- ② ㉡ : 고안(考案)했다
- ③ ㉢ : 소지(所持)한
- ④ ㉣ : 설정(設定)했다
- ⑤ ㉤ : 시사(示唆)되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에서 '만들었다'는 새로운 우주 이론을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고안하다'도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다'란 의미이다.

● **오답 배류기** ① '일으킬'은 '형성할'의 의미이고 '진작할'은 '떨쳐 일으킬'의 의미이다. ③ '닮은'의 의미이고 '소지하다'는 '가지고 있다'란 의미이다. ④ '판단하다'란 의미이고 '설정하다'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두다'란 의미이다. ⑤ '준비되어'란 의미이고 '시사(示唆)하다'는 '넌지시 알려 주다'란 의미이다.

✓ **해답** ②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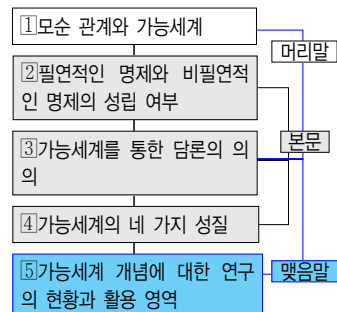
①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②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가능세계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성격을 분석한 다음 가능세계에 대한 담론의 의미와 연구의 현황 및 활용 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어휘·클리닉

● 통찰 : 전체를 환하게 내다봄. 예리하게 꿰뚫어 봄.

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⁵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39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륵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sim P$ 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sim P$ 이다.”라는 배중륵이 성립한다.’라는 구절에서 어느 세계는 현실세계와 가능세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배중륵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명제는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라는 구절로 보아 모든 가능한 명제는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③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④ ‘P와 $\sim P$ 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⑤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 **해답** ①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 **문항 분석** 제시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는 “만약 Q이면 Q이다.”라는 형식의 명제인데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라는 구절로 보면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모든 가능세계이고 ㉠은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이다. 따라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로 보아 ㉠이 거짓인 가능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와 모순 관계는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이므로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와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가능세계의 완결성 즉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이 현실세계에서 참이고 ㉡과 ㉢이 모순 관계가 아닌데 ㉢에 대해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과 ㉢이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 **해답** ②

4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아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라는 의미가 물음의 답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서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와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라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가 되므로 전체 의미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

● 오답 바꾸기

①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명제는 유사성의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있는 명제가 못된다. ②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은 기차 고장과 관련이 없는 세계들이어서 지각과 관련이 없다. ④ 지각을 하지 않은 결과는 이유로 제시할 수 없다. ⑤ 가능세계들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실세계와는 관련이 없다.

✓ 해답 ③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을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것이 가능하므로 가능세계의 포괄성 즉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은 배중률의 성립을 의미하는 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라는 <보기>의 내용으로부터 둘의 관계가 반대 관계이므로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이 성립되지 않는다. ②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가능한 내용이므로 가능세계가 존재하고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도 존재하나 이들 세계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어 동시에 가능한 세계는 없다. ③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소반대 관계로 모순 관계가 아니므로 가능세계의 포괄성인 배중률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모순 관계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이다.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는 것인데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므로 일관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해답** ④

수능국어

항

출제 경향



화제 항목을 일정한 흐름과 짜임에 맞도록 배열한 방식을 논지 전개 방식이라 하고 설명, 논증, 묘사, 서사 등 글을 조직하는 일정한 원리를 진술 방식이라 하는데, 논지 전개 방식과 진술 방식의 원리나 그 갈래, 동일한 방식을 쓴 글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앞에서 말한 논지 전개 방식에 의한 결론이 곧 주제가 되는데 주제란 필자가 제재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 평가를 내려 집필 동기 및 통일적인 기본 이념으로 삼은 것이다. 즉, 핵심이 되는 의미 또는 중심 사상이다. 이러한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알아내는 문제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 주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아내는 문제, 그리고 표제와 부제를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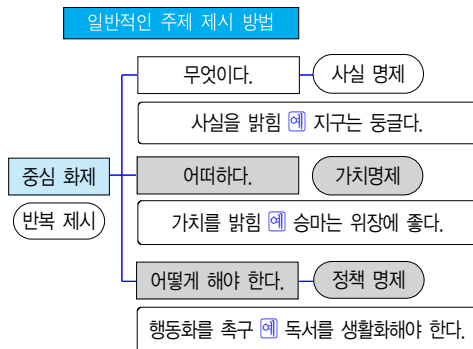
수능국어

항

원리



(1) 글의 일반적인 주제 제시 방법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는 중심 화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형태로 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중심 화제를 찾고 이에 대하여 무엇이다,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 주제문으로 잡으면 된다.

예문보기

창조를 흔히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냄이라고 한다. ‘무(無)’란 ‘없음’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여도 없음에는 우선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완전히 없음을 의미하는 무가 하나요, 그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그 어떤 무엇이 없음을 의미하는 결여의 무가 또 하나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아닌 재물건이건 인간이건과의 관계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거나, 이 점을 두고서라도 인간이 하는 창조를 말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인간에 있어서 문제되는 창조란, 아직까지 없었던 특정된 그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유로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박종홍, 새 역사의 창조

- ▶ 창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는 창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 화제에 대하여 ‘인간에 있어서 문제되는 창조란, 아직까지 없었던 특정된 그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유로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

(2) 논지 전개 방식과 주제 제시 방법

① 추론 방식에 따라

- ㉠ **연역적 방식** : 추상적 진술인 대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을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일 년 내내 녹색의 잎을 가지에 매달고 있는 상록침엽수들은, 겨울철에는 토양 온도가 낮아서 뿌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만, 햇볕에 비치면 잎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을 증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 나무의 잎은 겨울철 증산 작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두꺼운 큐티쿨라 층을 가지고 있고, 기공이 잎의 요면에 들어가 있으며, 햇물관의 구조도 수분 통로가 증산이 억제되도록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솔잎과 같이 잎이 두껍고 끈적끈적하거나, 회양목이나 동백나무처럼 두껍고 작은 잎을 가진 상록수들은 물의 씹숨이가 작아서 겨울철 햇볕 아래서도 수분의 지출이 적어 살아갈 수 있다.

생명체가 어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몸을 축소시켜야만 충격이 줄어드는 법이다. 고양이가 점프하여 착지할 때에도 몸을 움츠려 충격을 최소화한다. 권투 선수도 움츠린 상태에서 맞을 때 충격이 적다. 선인장은 건조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잎을 계속 줄여 나간 끝에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이다. **나무는 저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잎들을 떨어뜨려 자신의 몸을 최소화시킨 후, 겨울을 맞이해야만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다.**

— 권성환, 겨울잠을 준비하는 식물들

☞ 위글의 첫째 문단이 상록침엽수의 겨울을 나기 위한 잎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둘째 문단의 중심 화제로 나무로 잡아야 한다. 즉 생명체와 관련된 일반적 진술로부터 연역적으로 전개하여 나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문단의 주제문은 '나무는 저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잎들을 떨어뜨려 자신의 몸을 최소화시킨 후, 겨울을 맞이해야만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문장이다.

- ㉡ **귀납적 방식** : 하위 개념에 속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상위 개념에 속하는 원리를 도출하는 일반화의 경우는 **보편적 원리를 주제로 제시하고** 두 개의 대상 사이에 일련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들의 나머지 속성도 동일하리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유추(유비추리)의 경우는 **미지의 사실을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예수는 사랑을 부르짖었다. 누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웃과 하느님을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자는 이른바 인의 예지(仁義禮智)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석가는 대자대비, 곧 자비심을 발휘하는 삶만이 열반에 든다고 가르쳤다. 그 밖의 많은 성현과 위인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곧 그들은 사람이란 동물과는 달리 물질의 욕구나 본능의 충족을 목표로 삼지 않고 정신적인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는 본능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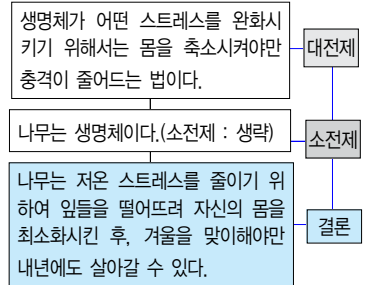
— 장인용, 「인생과 가치」

☞ 예수, 공자, 석가 등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인간에게는 본능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역법(정언 삼단 논법)의 형식

M은 P다. S는 M이다. ∴ S는 P다.	P : 대명사(대개념) S : 소명사(소개념) M : 중명사(매개념)
-------------------------------	--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귀납법의 형식

A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B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C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 일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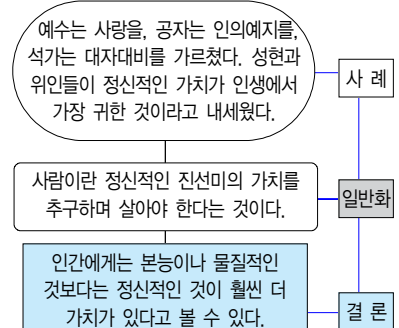
따라서 모든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유추의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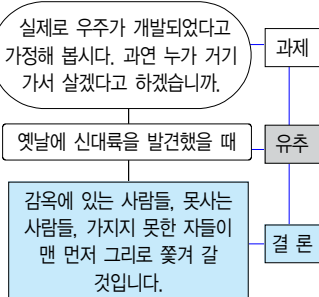
A는 a, b, c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B도 a, b, c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A는 d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B도 d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A, B : 대상
a, b, c, d : 속성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예문보기

실제로 우주가 개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누가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비싼 우주여행 상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여행은 지금 신청해도 10년은 기다려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미지의 땅이 개발되면 그 비싼 우주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옛날에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랬듯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맨 먼저 그리로 쫓겨 갈 것입니다.**

—최재천,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거듭나기**

▶ 우주의 미지의 땅을 신대륙에 유추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맨 먼저 그리로 쫓겨 갈 것'이라는 미지의 내용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㉞ **변증법적 방식** : 정(正)과 반(反)을 대립시키고 **정·반의 합(合) 즉, 절충안을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문학이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때 문학도 필연적인 역사성을 떠날 수 없다. 왜냐 하면, 각 사람이 사는 환경은 매순간마다 특수한 것이며, 거기서 빚어지는 체험도 구체적이며 따라서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문학 작품도 특수성을 떨 수 밖에 없고, 특수성을 벗어나는 경우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추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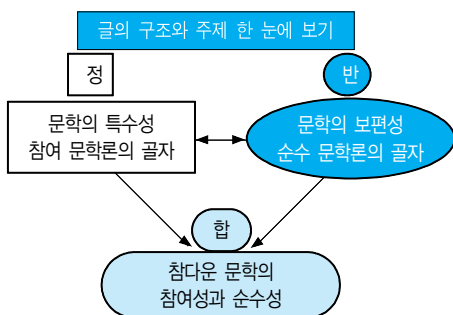
문학 작품이 특수하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극히 개별적인 활동의 결과이면서 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한 문학 작품은 그것이 쓰여진 시대와 한 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한 시대와 한 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으며 호소하기 마련이다.

참여 문학론의 골자는 문학의 시대와 사회성을 강조한다. 한 개인의 개별적인 체험을 넘어 시대와 사회라는 비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 주장은 완전한 의미에서 문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수한 역사, 사회, 그리고 특수한 주제와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지는 순수 문학 이론과 맞서서 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순수 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문학이 삶의 문제를 다루되, 그러한 문제는 비록 구체적인 사회와 시대를 떠난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구체적인 시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보다 보편적인 삶의 문제, 보다 영원성 있는 체험을 나타내서 특수한 시대와 사회를 초월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운 문학은 참여 문학이 아닐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순수 문학이 아닐 수 없다. 문학 작품은 참여라든지 혹은 순수라든지의 극히 편협적이고 일반적인 그릇된 관점을 무시하고 그것의 기능, 즉 가장 절실하고 가장 참신한 체험을 표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학은 절실히 그리고 깊고 보편적인 감동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 박이문,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

▶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서 문학의 특수성과 참여 문학론의 골자를 제시하고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 문학의 보편성과 순수 문학론의 골자를 제시해 서로 대립시킨 후 '참다운 문학의 참여성과 순수성'이라는 합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㉟ **논박적 방식** : 자신의 견해와 대립된 주장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옹호하려는 주장을 제시한다. **옹호하려는 주장이 주제이다.**

우리는 종종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갑작스레 나왔다고 생각한다. 낯설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종 '시기 상조'라는 반대의 논리가 힘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감옥으로 보낸 나라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무 논의 없이 60여 년 동안 감옥으로만 보냈기 때문에 2001년 이 문제가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지만 이미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낸 이후였다.

그리고 나서도 감옥행은 계속 이어졌다. 2006년 5월 31일까지 총 1만 2324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보내졌다. 어느 주간지의 계산을 빌리자면 이들에게는 총 2만 5482년의 징역형이 내려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812명의 젊은이들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수감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오늘도 2명의 젊은이들이 재판장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내일도 2명의 젊은이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들은 면제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병역에 대한 면제나 특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감옥에 가고, 평생 전과자로 살고자 하는 결정을 했을까.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복무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다하고 싶었던** 젊은이들에게 사회는 그냥 감옥에 가라고 했다.

— 임재성, 「오마이뉴스」

▶ 병역 의무를 군복무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복무'를 논거로 하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의무(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논박하고 있다.

② 구성 방식에 따른 글의 주제

- ㉠ 자연적 구성 :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피 나가는 전개적 구성.
 - ㉡ 시간적 구성 :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화제 항목을 배열하는 구성. 서사적 사건의 구성에 주로 쓰인다. **서사적 의미를 찾아 주제로 잡아야 된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까운 지역 신도시에서 운전 미숙으로 길을 잘 못 들어 아무리 헤매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 찾아가려고 한참 기다리니 멋지게 생긴 승용차 한대가 지나가기에 손을 들어 세워 우리가 찾아가는 지역의 방향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대답하더니 따라 오라는 것이었다. 인도하는 차를 따라가 보니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가던 방향의 반대쪽임에도 아무 말 없이 수고해 주고 다시 안내까지 철저하게 해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르쳐 준 길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려는 데 인도해 주던 차가 경적을 울려 주면서 잘 가라고 손짓을 해준다. 그는 못 미더워서 끝까지 우리가 가는 방향을 확인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 신동우, 「진정한 친절」

▶ 여기서는 서사적 의미인 '영국인은 진정으로 친절하다'를 주제로 잡는다.

- ㉢ 공간적 구성 : 대상의 배열 순서에 따라 화제 항목을 배열하는 구성. 대상의 묘사에 주로 쓰인다. **대상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속성이 주제가 된다.**

예문 보기

장군총은 집안읍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큰 돌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일곱 단으로 쌓은 피라미드형이다. 한 변의 길이는 약 30미터, 높이는 13.5미터로 네 귀가 각각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정면은 남서쪽으로 통구 평야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현실(玄室)은 제3단의 뒷면을 바닥으로 하는 상자 모양의 방이며, 이 안에 두 개의 광받침이 나란히 있고, 그 앞에는 연도가 있다. 고분의 꼭대기는 석회질과 자갈을 섞어 만들어 표면이 둥글게 지붕처럼 되어 있고, 가장자리 둘에는 같은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난간을 세웠던 자리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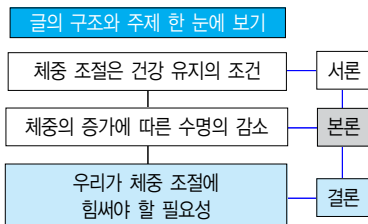
— 김원룡, 「한국의 고분」

여기서는 대상의 전체적인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장군총은 집안읍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큰 돌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일곱 단으로 쌓은 피라미드형이다.’라는 문장을 주제로 잡는다.

- ㉠ 논리적 구성 : 쓰는 이의 의도대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배열하는 종합적 구성.
- ㉡ 단계식 구성 : 설명문, 논설문에 주로 쓰이며 3, 4, 5단의 구성법이 있는데 주제는 결론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1. 도입	1. 도입	1. 주의 환기(화제에 주의를 모으는 단계)
		2. 과제 제기(문제를 제기하는 단계)
2. 전개	2. 전개	3. 과제 해명(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단계)
	3. 발전	4. 구체화(해결법을 구체화하고 그 유효성을 증명하는 단계)
3. 정리	4. 정리	5. 요약(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과 전망

예문 보기



• 3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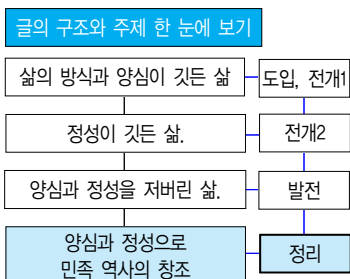
체중 조절은 건강 유지의 기본 조건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평균 체중보다 10% 가량 가벼운 사람이 가장 사망률이 낮다. 평균 체중보다 10% 무거울 때 남자에게는 11%, 여자에게는 7%의 수명 감소율을 가져오며, 20% 무거울 때는 남자에게는 20%, 여자에게는 10%의 수명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실험 보고는 우리가 체중 조절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을 말해 준다.

체중 조절은 건강의 유지 조건이라는 서론으로부터 체중의 증가에 따른 수명의 감소라는 내용을 해명한 다음 체중 조절에 힘써야 할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문 보기



• 4단 구성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누구도 탓할 것이 못 될 줄 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마음가짐만은 바르게 가질 것을 다져야 한다. 바른 마음이란, 곧 양심을 뜻한다. 욕망에 물들지 않고 거짓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발가벗은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성,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은 티없이 맑은 하늘처럼 깨끗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하늘처럼 맑기만 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나 하면, 양심만으로는 살아갈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되, 그 움직임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제 아무리 살아가는 방식이 호화롭고 살아가는 방식이 떼떽하다손 치더라도 정성이 깃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트집이 나게 마련이고, 끝내는 양심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은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지저분해지고 죄악이 저질러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보다는, 자랑 따위는 시렁 위에 얹어 놓고 양심도 정성도 보자기를 덮어 감추어 버리고 오직 욕망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서글프기 짝이 없다. 서글프다기보다 적이 겨레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기나긴 민족의 역사로 보았을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상으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공들이다. 먼 훗날, 역사가들이 현재 **이 땅의 국민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정성을 외면함으로써 조국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병욱, 「정성과 금지로 행복을」

▶ 첫째 문단에서는 서론으로 삶의 방식을 말하고 곧바로 양심이 깃든 삶을 논하면서 전개¹로 삼고 있다. 이어 둘째 문단에서는 정성이 깃든 삶을 전개²로 내세우고 셋째 문단에서는 양심과 정성을 저버린 삶으로 화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넷째 문단에서는 전체 내용을 양심과 정성으로 민족 역사의 창조라고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⑥ **포괄식 구성**: 글의 주지를 어느 위치에 배열하는가에 따른 구성 방식으로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등이 있다. 글 전체보다는 어느 부분에 주로 쓰인다. **주제는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진술이 된다.**

예문보기

• **두괄식 구성**: 첫머리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항상 남을 앞지르려고 기를 쓰는 우리들은 계절도 흔히 앞당겨 사는 꼴이 되곤 한다. 우리는 한 겨울에 봄을 맞이하고 봄이 되면 여름을 살기에 바쁘다. 우리는 한 여름에 가을맛이를 서둘러야 하고, 가을이 되면 이젠 겨울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일을 먹는 습관만 봐도 여실히 입증된다. 우리나라 풍토에서 참외와 수박이 가장 맛있는 때는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그래서 참외와 수박은 한여름에 먹는 과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오늘날 행세를 하려면 한여름이 되기 훨씬 전에 참외와 수박을 먹어 두어야 한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겨울에 참외와 수박을 먹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쯤에는 그것들을 먹어야 낙오자가 아니다. 물론 때 이른 과일이 제 맛이 날리는 없지만,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면서까지 맛있는 과일 먹기를 원치 않는다.

— 김태길, 「앞만 보고 달리는 계절병」

▶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이를 입증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두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보기

• **미괄식 구성**: 끝 부분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우리 사회에서는 남의 애를 칭찬하는 말로서, ‘그놈 대통령 감이다.’, ‘그 놈 장군 감이다.’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런 말은 그 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는 말인지도 모른다. 아니,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거는 꿈인지도 모르겠다, 이 꿈 뒤에 서려있는 것은 조선 오백 년 동안 맺혀 왔던 모든 백성들의 꿈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고,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관리가 되는 것은 곧 일반 서민을 지배하는 계급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백성들의 꿈이

란 남보다 나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꿈은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권력 투쟁이다. 죽고 죽이고 유배당하는 조선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이 그것을 실증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 지향의 꿈은 언제나 정치적 비극의 불씨가 되어 왔다.** — 김상태, 「꿈」

▶ 사례들을 앞에 내세우고 주장을 끝에 제시하고 있어 마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 보기

- **중괄식 구성** : 가운데 부분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가치 곧 진선미를 향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끌리고 세차게 움직인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꽃이나 그림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착한 어린이의 순진한 행동을 보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이들을 대하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누구나 모든 일에서 거짓보다는 참다운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특히 탐구심이 강한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오롯이 바치는 일조차 있다.

▶ 전체를 포괄하는 진술이 가운데 있어 중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 보기

- **양괄식 구성** : 처음과 끝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처음과 끝에 형태는 다르나 뜻은 같은 문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를 향한 내적인 성찰과 세계를 향한 외적인 관찰은 인간 사고의 두 개의 극(極)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별개의 것은 아니다. 내가 내게 관심을 가질 때 나는 필경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실존한다 해도 그 실존은 언제나 세계와 더불어 있는 실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에 관해 던지는 물음과 세계에 관해 던지는 물음은 짝지어져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김열규, 「신화적 사고」

▶ 같은 의미의 주장이 앞과 뒤에 있어 양괄식 구성이 된다.

- ③ **무괄식 구성** : 글의 주제가 쉽게 드러나는 경우 별도로 주제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전체의 내용을 대등하게 나열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진술을 작성하여 주제문으로 잡는다.**

예문 보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균 할머니**로 통하는 분이 있다. 가난한 농사꾼의 몸으로 아들을 잘 가르쳐서 고시 파스까지 시켜 그 아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호화 주택에 자가용까지 놓고 살기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부잣집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한 덕분이기도 했으리라. 어느 날 금이야 옥이야 하는 손자놈의 돌을 맞아 늙은 내외분이 나의 어머니처럼 보통이를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행여나 옷에서 먼지라도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 숨을 죽이며 발을 옮겨 다녀야 할 저택, 늙은이들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을까. 아장아장 손자놈이 걸어 나왔다. 얼마나 보고 싶던 핏덩이인가. 무심결에 “아이쿠 내 새끼야” 외치는 소리에 앞서 어느덧 손자는 할머니의 품 속에 안겨 있었다. 뒤늦게 나오다가 이를 본 며느리가 질겁을 했다. 시부모님께 대한 인사는 저만 두고 “저런 균이 옳으면 어쩔라고” 신경질을 부리며 아기를 빼앗아 가더라는 것이다. “닭쫓던 개”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 문도채, 「균 할머니」

🔗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괄식 구성이 되고 주제는 서사적 의미를 작성하여 '도시 머느리는 시골 시부모를 아랑곳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라 할 수 있다.

㉔ 열거식 구성 :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구성. 문제간의 관련성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글에 주로 쓰인다. 이 경우는 전체의 내용을 대등하게 나열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진술을 작성하여 주제문으로 삼는다.

예문보기

타악기는 장고나 징과 같이,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그 대표적인 것은 북으로, 통나무, 바가지 등에 짐승의 가죽으로 때리는 면을 만들어 작대기나 손으로 치는 것이며, 모양도 우리나라의 절구처럼 된 것, 장고 모양, 향아리 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의 신호용 북은 큰 통나무로 3미터 정도의 길이로 된 나무를, 속을 파고 껍질에 문양을 조각한 것도 있다. 북의 중앙, 전후, 좌우를 치면서 갖가지 음을 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북으로 표현된다.

관악기의 간단한 형태로는 버들피리처럼 입에다 나무 껍질을 갖다 대고 진동시키는 입피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대로 된 통소나 피리가 있다. 짐승의 뼈로 만든 것, 짐승의 뿔로 만든 것, 조개 껍데기로 된 것 등도 있지만, 피리의 대부분은 대나무로 된 것으로 옆으로 부는 것, 앞으로 부는 것이 있으며, 길고 짧은 대를 한 줄로 엮어 하모니카와 같이 부는 것도 있고 코로 부는 것도 있다. 코로 부는 피리는 동남 아시아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또 다른 관악기로 나팔이 있는데, 이것은 긴 나무를 속을 비워 만든 것으로 길이가 짧고 음이 강한 것도 있고, 길이가 3미터 정도 긴 것도 있으며, 특히 티벳과 같이 고산 지대에서는 이렇게 긴 나팔을 산꼭대기에서 신호용으로 사용한다.

현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등과 같이 악기에 붙어 있는 현을 사용하되 다른 현궁(絃弓)으로 음을 내는 것과, 하프나 우리나라 가야금과 같이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 해금과 같은 것으로 현의 수, 현궁, 그리고 모양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후자의 예로는 우리나라 월금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활과 같이 단순한 것도 있다.

— 이광규, 「문화인류학」

🔗 첫째 문단의 주제는 '타악기의 개념과 그 대표적인 것'이고 둘째 문단의 주제는 '관악기의 개념과 그 대표적인 피리'이며 셋째 문단의 주제는 '또 다른 관악기인 나팔'이다. 넷째 문단의 주제는 '현악기의 개념과 그 두 부류'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열거식 구성이다. 전체의 주제는 포괄적 내용으로 작성하여 '악기의 종류별 개념과 특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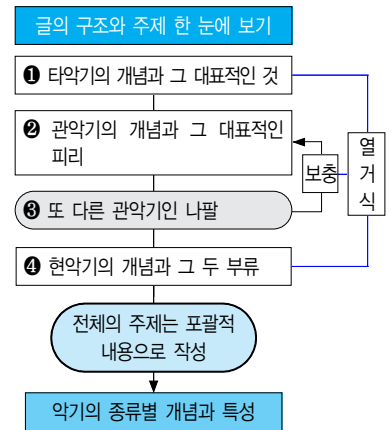
㉕ 점층식(점강식) 구성 : 덜 중요한 것에서부터 중요성이 큰 것의 순서나 그 역순으로 배열하는 구성으로 문학 작품에 주로 사용된다. 중요성이 큰 내용을 담은 진술이 주제문이 된다.

예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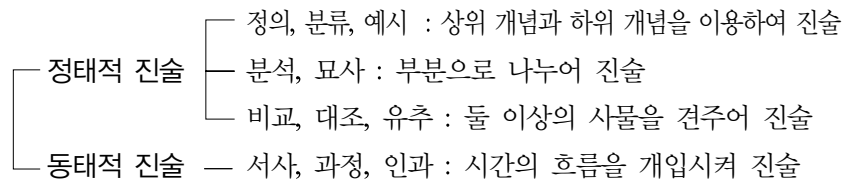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 이양하, 「신록예찬」

🔗 눈, 머리, 가슴, 마음 등으로 보아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점층적 구성이 되고 주제문은 '신록은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라 할 수 있다.



③ 진술 방식에 따른 글의 주제



㉠ 정 의 : 어떤 대상 또는 생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본질을 진술하는 지적 작용. **주로 정의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엉터리 약사, 의사 등을 흔히 돌팔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이든 돈을 받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돌팔이라고 말들을 한다. **돌팔이란 돌아다니면서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정의의 방식

정의는 피정의항과 정의항으로 이루어지며 정의항은 다시 종차(종 개념)와 최근 유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관계를 맺어주는 요소로 계사(-이다)도 사용된다.

사람	이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	이다.
종개념	계사	종차 요소, 변별 요소	최근 유개념	계사
피정의항		정 의 항		

예문보기

연필은 나무에 흑연심을 박아 깎아 쓰게 만든 필기구이다.

- ▶ 종차 요소란 같은 유개념 속에서 다른 요소와 구별되는 그 대상만의 특유한 속성이다.
- ▶ 최근 유개념이란 그 대상을 포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상위 개념이다.
- ▶ 계사란 피정의항과 정의항을 연결시켜 주는 언어이다.

- ▶ 특유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동일 유개념에 속하는 다른 종(種)을 나타내거나, 다른 종을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재차도 시계가 될 수 있다는 오류가 발생한다.
- ▶ 정의항에서 종차가 나타내는 범위가 피정의항보다 좁거나 넓으면, 피정의항의 일부분의 속성만 드러내거나 다른 종(種)의 속성까지도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물의 움직임은 표현할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한다.
- ▶ 정의항으로 피정의항을 순환 논증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인류학자는 인류와 학자로 나뉘어 피정의항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정의할 때의 유의점

- ㉠ 정의는 반드시 대상의 특유한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 잘된 정의 : 시계란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 잘못된 정의 : 시계란 여러 가지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 ㉡ 정의항의 외연은 피정의항의 외연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잘된 정의 : 동사(動詞)란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품사이다.
 - 잘못된 정의 : 동사란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품사이다.
- ㉢ 정의를 내리는 개념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의 받는 개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잘된 정의 : 인류학자란 인류 및 인종의 기원·특징, 나아가 인류의 여러 가지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는 사람이다.

•잘못된 정의 : 인류학자는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④ 정의를 내리는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부정 개념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나 피정의항 자체가 부정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잘된 정의 : 새는 다리가 두 개 있으며, 온 몸에 깃털이 나 있고 알을 낳는 날짐승이다.

•잘못된 정의 : 새는 네 발이 달리지 않은 날짐승이다.

•잘된 정의 : 무척추 동물은 등뼈가 없는 동물이다.

⑤ 비유나 모호한 어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잘된 정의 : 양심은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옳음과 착함을 명령하고 사악(邪惡)을 물리치는 통일적인 의식이다.

•잘못된 정의 : 양심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경고해 주는 목소리 같은 마음이다.

㉠ 분 류 : 어떤 대상이나 생각들을 비슷한 특성에 근거하여 상위 개념으로 묶거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진술하는 방식.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의 분류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인간의 기원 문제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두 학설이 있다. 자연적인 것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이 대표적이며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으로 아메바가 생기고 이에서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다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창조론이 대표적인데 창조주의 의도적인 설계에 따라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 예 시 :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하위 개념으로 예를 들어 구체화시키는 진술 방식. 예시에 대한 추상적 진술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우리의 몽유록(夢遊錄) 작품에는 꿈을 빌어 작자의 마음속 울분을 토로하거나 시대를 비판한 것이 많다.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실패한 슬픔과 억울함을 나타낸 '원생몽유록'과 병자호란의 참상과 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몽유록'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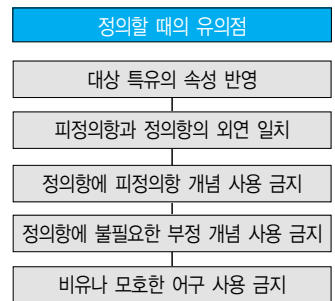
㉢ 분 석 : 하나의 관념이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진술하는 방식. 대상의 구성 요소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고전적인 시계는 태엽과 톱니바퀴, 바늘로 이루어져 있다. 태엽의 힘으로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바늘을 적당한 속도로 돌리게 된다. 이런 바늘의 움직임인 정도를 알게 해 주기 위해 숫자판이 있고 숫자판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로 덮어놓았다.

❶ 부정적인 표현은 피정의항 외에 엉뚱한 것을 포함하는 오류를 낳는다. 여기서는 새 이외에 여섯 발이 달린, 곤충이면서 날 수 있는 잠자리, 벌 등 피정의항과 관련 없는 여러 가지 동물을 다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❷ 비유하거나 모호한 어구를 사용하면 피정의항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양심이 목소리에 비유되어 양심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 ㉔ 묘 사 : 대상의 형태, 색채, 감촉, 향기, 소리, 맛, 분위기 등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본떠서 독자가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게 진술하는 방식. **대상의 전체적인 양상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서인도 제도는 따뜻한 바다 가운데 있다. 이 바다에서 생긴 온난하고 습기가 찬 무역풍이 이 섬들로 불어간다.

- ㉕ 비 교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비슷한 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 **대상의 공통점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연극과 영화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을 다루되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 ㉖ 대 조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 **대상의 차이점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희곡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제시하지만 소설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할 수 없지만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 ㉗ 유 추 : 어떤 공통된 근거에 따라 미지의 사실을 추론하는 진술 방식. **미지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인생은 짧지 않다. 그리고 결국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마라톤도 긴 거리를 혼자 달리는 힘든 경기이다. 따라서 **인생도 마라톤처럼 힘든 여정이라 할 수 있다.**

- ㉘ 서 사 : 일정한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이나 시간의 전개에 따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방법. **서사적 의미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오후 다섯 시 경에 일본 공사관은 포위 속에 빠져 버렸다. 총소리가 ‘탕!’ 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조선 군인의 발포다. 뒤미처 총소리가 콩 볶듯 일어난다. 공사관은 유리창이 깨어지고 벽이 뚫어지기 시작한다.



서사적 의미인 **임오군란**이 주제이다.

- ㉙ 과 정 : 동일한 목표나 결과를 가져오게 한 일련의 행동, 변화, 기능, 단계, 작용에 관계되는 원리로서, ‘어떻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진술하는 방식. **목표나 결과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우선, 김치를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 두부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파, 마늘 등의 양념을 넣고 좀 더 끓인다.



목표인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주제이다.

- ㉞ 인과 :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영향이나 힘, 또는 이러한 힘에 의해 초래된 현상에 관심을 두고 전개하는 방법. 주로 결과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사람들이 산을 개간하여 농지로 바꾸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자,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고 그 결과 산은 더욱 험박하게 되었으며 결국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었다.

- ㉟ 지정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듯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설명 방법, 주로 정의와 함께 사용된다. 대상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북쪽 하늘에 W자처럼 배열된 별자리가 카시오페아 자리이다.

- ㊱ 비유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연결시켜 제시하는 진술 방식. 대상에 대한 비유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현대 사회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말한다면 현대 사회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배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수능국어

항

사고 방법

**(1) 문단의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찾는 방법**

- ① 자주 반복되는 말이 제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주 반복되는 말에 대해 ‘무엇이다’, ‘어떠하다’고 말하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② 비교, 대조, 열거로 이루어진 문단에서와 같이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무관식처럼 나열되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일반적 문장을 만들어 주제로 잡는다.
- ③ 구체적 진술의 문장과 추상적 진술의 문단에서는 추론 방식을 고려하여 연역법이면 구체적 진술을, 귀납법이면 추상적 진술을, 변증법이면 그 합을, 논박이면 대립된 주장에 대한 옹호하려는 주장을 주제로 잡는다.
- ④ 진술 방식에 따른 주제 표출 방식을 고려하여 주제를 찾아본다.

(2) 전체의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찾는 방법

- ① 문단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여 각 문단의 주제문을 만든다.
- ② 각 문단의 주제문을 모아 하나의 문단으로 생각하고 논지 전개 방식과 진술 방식을 고려하여 주제문을 찾는다.

(3)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의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작성된 주제문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확인한다.

(4) 주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의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주제문에 포함된 어휘들을 제시된 어휘들과 비교한다.

(5) 표제와 부제를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이나 구절과 관련된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표제는 중심 제재인가, 주제의 일반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가 확인해 본다.
- ③ 부제는 중심 제재를 풀이하는 말인가,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인가 확인해 본다.

(6)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방법

우선 설문에서 제시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추상적 진술 혹은 주제와 뒷받침 진술로 나눠 본다.

- ① 추론 방식에 따른 갈래(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논박)를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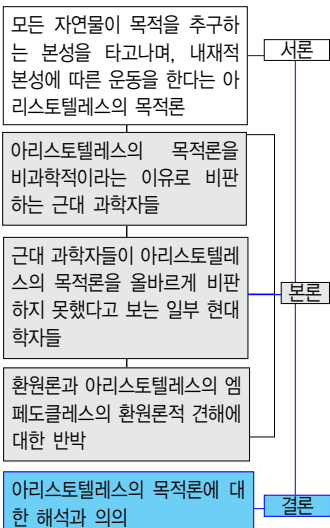
- ② 구성 방식에 따른 갈래(시간적, 공간적, 단계식, 포괄식, 열거식, 점층식)를 생각해 본다.
- ③ 진술 방식에 따른 갈래(서사, 과정, 인과, 분석,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유추)를 생각해 본다.
- ④ 혼동하기 쉬운 진술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 **비교와 대조** : 비교는 차이가 많이 나는 대상들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고, 대조는 같아 보이는 대상들의 차이를 밝히는 데 사용한다.
 - ㉡ **비유와 유추** : 문장의 외형으로 볼 때, 비유는 대상 자체가 같다고 표현되며 유추는 속성이 같다고 표현된다. 비유는 공통된 속성이 한 가지만 있어도 되나 유추는 둘 이상, 많을수록 좋다.
 - ㉢ **비교와 유추** : 비교는 두 대상의 특정한 점을 같다고 서술하는 것이며, 유추는 두 대상 사이에 특정한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 ㉣ **정의와 지정** : 정의는 대상의 속성이 드러나고 지정은 대상 자체가 드러난다.
 - ▶ “엔터리 역사, 의사 등을 흔히 돌팔이라고 한다.”(정의)에서는 돌팔이의 속성(엔터리)이 드러난다. 그러나 “북쪽 하늘에 W자처럼 배열된 별자리가 카시오페아 자리이다.”(지정)에서는 카시오페아 자리의 속성은 드러나지 않고 카시오페아 자리 자체만 드러난다.
 - ㉤ **과정과 서사** : 과정은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서사는 그럴 수 없다.
 - ▶ 9쪽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늘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임오군란” 같은 사건은 되풀이 될 경우 공시관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 **분석과 분류** : 분석은 분해한 것이므로 종합해야 개체나 결과가 성립하는데 비해, 분류는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나 결과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다. 즉 분석은 잘 종합을 해야 상위 개념이 될 수 있으나 분류한 것은 곧바로 상위 개념에 속할 수 있다.
 - ▶ 시계를 ‘분석’한 태엽, 톱니바퀴, 바늘 등은 잘 맞춰 종합해야 시계가 되지만, 시계를 ‘분류’한 벽시계, 손목시계 등은 그 자체로 시계이다.

(7) 올바른 정의를 확인하는 방법

- ① 대상의 특유한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② 종차가 나타내는 범위가 피정의항보다 좁거나 넓지 않은지 확인한다.
- ③ 정의를 내리는 개념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의 받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부정의 개념이 없는 피정의항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정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⑤ 비유하거나 모호한 어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제시하고 이에 비판적인 근대 과학자들의 주장을 드러낸 다음 다시 근대과학자들에 대한 현대 과학자들의 비판을 제시하면서 목적론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왜곡하다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다.
- 교조적 :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또는 그런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0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둘째 문단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근대 과학자들. 셋째 문단 : 근대 과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올바르게 비판하지 못했다고 보는 일부 현대 학자들. 넷째 문단 : 환원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엠페도클레스의 환원론적 견해에 대한 반박. 다섯째 문단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해석과 의의. 이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밝힌 다음 그것의 해석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배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각 문단의 주제를 포괄하는 내용이 못 된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비섭유소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인간과 비섭유소와 섭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반추 동물

머리말

피브로박터속시노젠의 생리적 특성을 반추 동물이 활용하는 방법

본문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의 생리적 특성을 반추 동물이 활용하는 방법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보충

- ▶ 인간과 다른 반추 동물이 섭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대사산물 : 물질대사에 관여하거나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 소진되다 :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지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섭유소와 비섭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섭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섭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섭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섭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섭유소와 섭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피브로박터속시노젠(F)은 섭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반추위에는 비섭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섭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루미니스(L)

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혐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02 윗글을 바탕으로 ㉠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 이를 이용하여 성장하는 (㉡)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 ① ☐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② ☐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③ ☐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 동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④ ☐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⑤ ☐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생략된 논리적 인과 관계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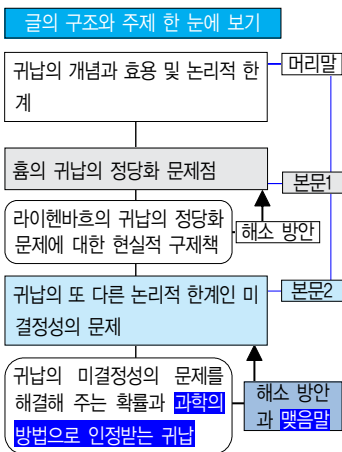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반추 동물은 인간과 같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이 섭취한 녹말과 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성장하는 미생물 F, S, L 등의 에너지원이 되고 이 미생물들이 배출하

는 대사산물 아세트산, 젖산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이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③, ④, ⑤ 모두 짝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글 전체의 내용과 어긋난다.

✓ 애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설들을 설명하여 귀납이 과학적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선형적 :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그런 것.
- 구제책 : 구제할 대책.
- 개연성 :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낮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03 읽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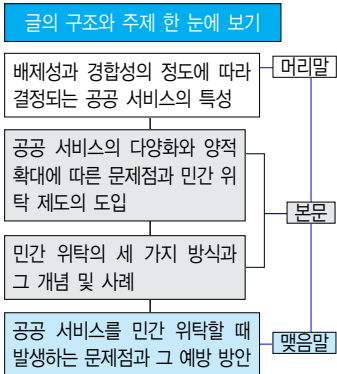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주제와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귀납의 개념과 효용 및 문제점, 둘째 문단 : 흄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점, 셋째 문단 : 라이헨바흐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구체책, 넷째 문단 :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인 미결정성의 문제, 다섯째 문단 :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확률과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받는 귀납. 이로 보면 전체의 주제는 귀납법의 논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④ 모두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글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 ▶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제시하고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배제성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는 성질.
- 경합성 서로 맞서 겨루는 성질.
- 위탁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 입찰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04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라는 문장에서 특성의 개념을 밝힌 다음 ‘국방과 치안’, ‘공공 도서관’ 등의 특성이 적용된 예를 들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③, ④, ⑤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밝힌 문장의 주제와도 관련이 없다.

✓ **해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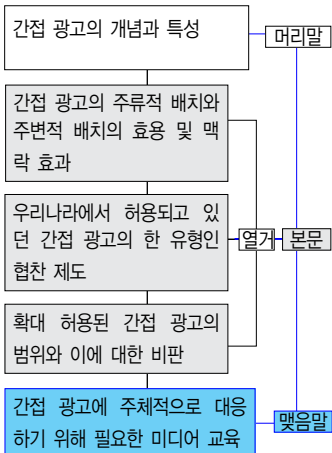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누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힌 다음 그 방식과 효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들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해·클리어

•프레임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 '틀'로 순화.

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0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는 첫째 문단 :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둘째 문단 :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의 효용 및 맥락 효과, 셋째 문단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던 간접 광고의 한 유형인 협찬 제도, 넷째 문단 : 확대 허용된 간접 광고의 범위와 이에 대한 비판, 다섯째 문단 : 간접 광고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 교육 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첫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② 셋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③ 둘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④ 다섯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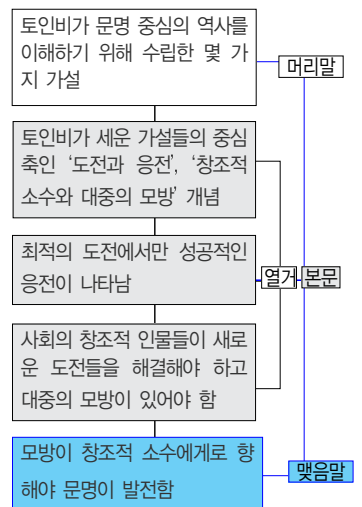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히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는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토인비가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립한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을 소개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

✂ 어휘·클리닉

•사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이른다.

06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 전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견해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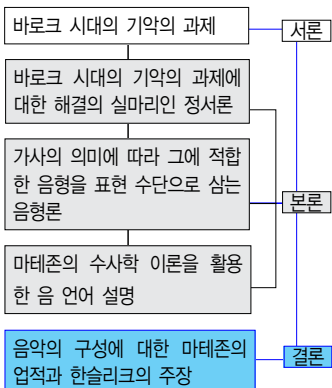
● **방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작성해 보자. 첫째 문단 : 토인비가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함, 둘째 문단 :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인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 셋째 문단 :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남, 넷째 문단 :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하고 대중의 모방이 있어야 함, 다섯째 문단 :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해야 문명이 발전함 등이다. 이를 토인비 견해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문명이며, 최적의 도전에 창조적 소수가 성공적·지속적으로 응전하고 대중의 모방이 창조적 소수를 향할 때 문명은 발생·성장한다.’라 할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는 ①이다.

● **오답 배류기** ② 모방도 두 갈래여서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 모방은 문명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③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④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 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했다. 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 ▶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정서론과 음형론 및 마테존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크리닉

- 견지되어야: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켜야
- 수사학: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

07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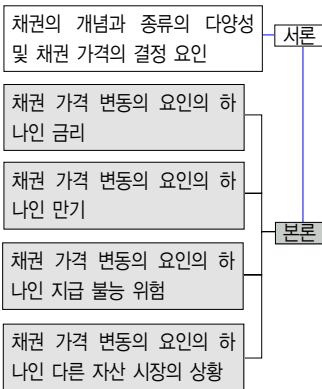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주된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 둘째 문단: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인 정서론, 셋째 문단: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 음형론, 넷째 문단: 마테존의 수사학 이론을 활용한 음 언어 설명, 다섯째 문단: 음악의 구성에 대한 마테존의 업적과 한슬리크의 주장. 이로 보아 전체의 주제는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문제점을 해결한 이론과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지 전개 방식은 ③이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다.

✓ **해답** ③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채권의 개념과 종류를 밝히고 채권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유가 증권 : 사법상 재산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선호한다 :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08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부분적인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팽 원리로 정답 찾기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의 방법을 말하는데 위 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이는 분석을 일컫는데 위 글에서는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둘째 문단에서 시중 금리를, 셋째 문단에서 만기를, 넷째 문단에서 지급 불능 위험을, 다섯째 문단에서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을 들고 있다. ② 이는 예시를 일컫는데 넷째 문단에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구절에 쓰인 설명 방법이다. ④ 이는 인과를 일컫는데 둘째 문단에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구절에 쓰인 설명 방법이다. ⑤ 이는 정의와 분류를 일컫는데 첫째 문단의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구절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다.

✓ 해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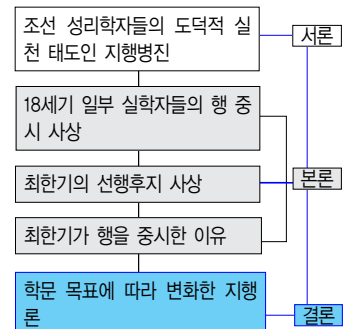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했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했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조선 성리학자들의 도덕적 실천 태도인 지행병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행론이 서로 다르게 발전한 이유는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물리(物理) : 물질의 이치.
- 사리(事理) : 여기서는 사람 사이의 이치.

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했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 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했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사리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09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 후지의 현대적 의미
- ② 지와 행의 개념과 그 한계
- ③ 도덕규범의 실천과 지행론
- ④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 ⑤ 삶에서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조선 성리학자들의 도덕적 실천 태도인 지행병진. 둘째 문단 : 18세기 일부 실학자들의 행 중시 사상. 셋째 문단 : 최한기의 선행후지 사상. 넷째 문단 : 최한기가 행을 중시한 이유. 다섯째 문단 : 학문 목표에 따라 변화한 지행론. 따라서 글 전체의 주제는 다섯째 문단의 주제인 '학문 목표에 따라 변화한 지행론'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은 ④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② 한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중심 화제이나 그 의미를 밝히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⑤ 지행론의 상위 개념이어서 너무 포괄적이다.

✓ 해답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의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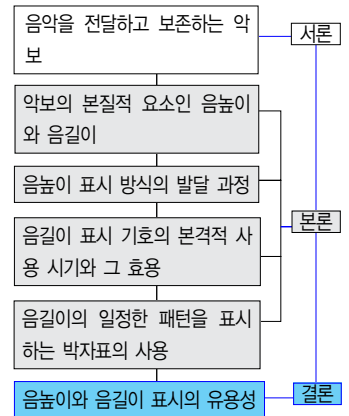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길이를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룽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 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다.

이름	두플렉스룽가	룽가	브레비스	세미브레비스
음표	■	■	■	◆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에 쓰이는 음높이와 음길이표의 사용 기원과 발전 및 그 효용성을 구성 요소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삼위일체 : 1. 세 가지의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 즉 삼일. 2. <기독교>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

10 위 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조하여 진술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권위 있는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⑤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단의 주제를 바탕으로 진술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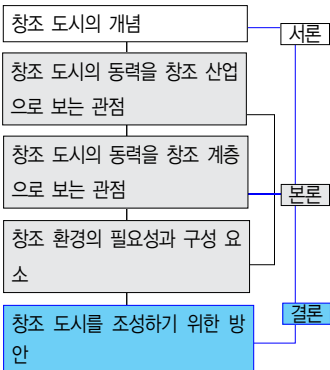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 둘째 문단 : 악보의 본질적 요소인 음높이와 음길이. 셋째 문단 : 음높이 표시 방식의 발달 과정. 넷째 문단 : 음길이 표시 기호의 본격적 사용 시기와 그 효용. 다섯째 문단 : 음길이의 일정한 패턴을 표시하는 박자표의 사용. 여섯째 문단 : 음높이와 음길이 표시의 유용성. 이로 보면 위 글은 악보에 사용되는 음높이와 음길이 표시의 사용 시기와 발전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④ 모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진술 방식이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창조 도시의 개념을 밝히고 그 동력을 서로 다른 두 관점으로 제시하고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를 소개한 다음 창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제고하는 : 이끌어 올리는.
- 역동적 : 힘차게 움직이는.

- 가**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 나**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 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술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 산업의 예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 예술,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
- 다**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창조 계층에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건축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 등이 포함된다.
- 라**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랜드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근성, 조직 문화, 지역 정체

성, 도시의 공공 공간과 시설, 역동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 마** 창조 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 산업의 산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 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그들의 전문화된 노동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11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창조 도시의 개념
- ② (나):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관점
- ③ (다):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계층으로 보는 관점
- ④ (라):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 ⑤ (마): 창조 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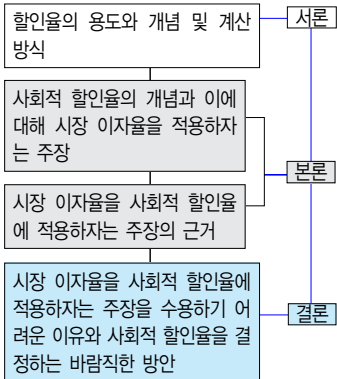
● **문항 분석** 각 문단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핵심 원리로 정답 찾기** (마)의 주제문은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이므로 중심 화제는 '창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가)의 주제문은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주제문은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문화·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주제문은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④ (라)의 주제문은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할인율의 개념과 용도를 소개하고 시장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힌 다음 이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타당성 :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위 글의 글쓰기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할인율의 개념과 그 예. 둘째 문단 :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과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의 제기. 셋째 문단 :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의 배경. 넷째 문단 :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안. 이로 보면 전체의 주제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은 ④이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⑤ 모두 글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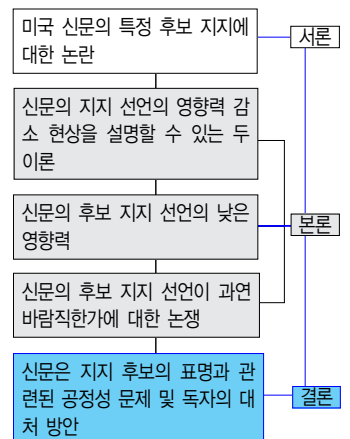
✓ **해답** ④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미국 신문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하여 그것의 낮은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신문의 공정성 유지를 주장한 후 독자의 올바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지지 :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씀. 또는 그 원조.
- 표심 :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마음.
- 인지하다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 함의 :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 해안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13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사례를 든 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ㄴ.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ㄷ.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ㄹ.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 전체를 구성하는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문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미국의 많은 신문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둘째 문단 : 신문의 지지 선언의 영향력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문단 :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종합

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문단 :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다섯째 문단 :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로 보면 첫째 문단에서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둘째, 셋째 문단에서는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ㄷ :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ㄹ :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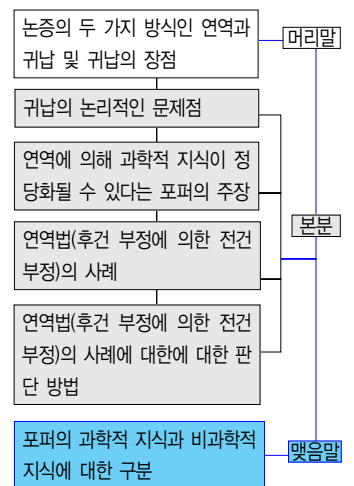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①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 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 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논증의 두 가지 방식인 연역과 귀납 및 귀납의 장점을 소개하고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연역에 의해 과학적 지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포퍼의 주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휘·크리닉

- 전제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반증 :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14 윗글의 (ㄱ)~(ㄷ)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은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가) 내가 오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내가 어제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내가 그저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
 (나)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 ① (가)가 확실히 참이어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내일 관찰된다면 (나)는 거짓이 된다.
- ② (ㄴ)과 (가)가 참임을 밝히는 작업은 모두 경험적이다.
- ③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ㄴ)만으로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만으로는 참임을 밝힐 수 없다.
- ④ (ㄱ), (ㄴ)에서 (ㄷ)이 도출되는 것이나 (가)에서 (나)가 도출되는 것은 모두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 ⑤ 포퍼에 따르면 ㉠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가 과학적 지식임은 (가)~(나)의 논증이 아니라 (ㄱ)~(ㄷ)의 논증을 통해 증명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추론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윗글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고, <보기>의 (가)는 사례들이며 (나)는 (가)를 일반화한 결론이다. 따라서 (가)에서 (나)가 도출되는 것은 귀납법이며 지식을 확장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ㄱ)은 연역법 중 후건 부정 논법의 대전제이며, (ㄴ)은 소전제, (ㄷ)은 결론이다. 따라서 이는 연역법으로 지식을 확장해주는 귀납법이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①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내일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관찰된다면 이는 새로운 사례로 귀납적 결론 (나)를 거짓으로 만든다. ② (ㄴ)과 (가)는 관찰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므로 경험적이다. ③ (ㄴ)은 연역법의 후건을 부정하

는 소전제로 결론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만들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를 거짓으로 만든다.
 ⑤ 포퍼는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고 (가)~(나)의 논증은 귀납에 해당하므로 과학적 지식이 아니나 (ㄱ)~(ㄷ)은 연역법이므로 과학적 지식이다.

✓ 해답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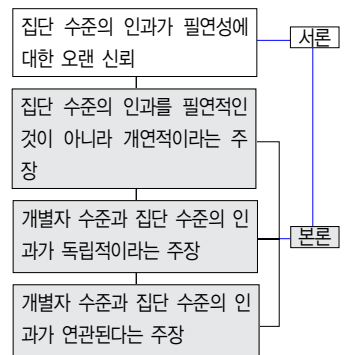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과 개연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대비하면서 질병의 경우를 그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요인 : 중요한 원인.
- 개연적인 : 일정한 조건 밑에서 일정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15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가)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나)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_____ ㉡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유추적 관계에 있는 두 사례의 대응 요소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짝 원리로 정답 찾기 ㉠의 주장인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에 대응하는 진술은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좋은 씨앗과 대응되므로 ④가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⑤ 모두 짝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유추적 대응 관계에 어긋난다.

✓ 해답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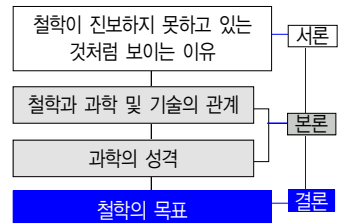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철학자의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飛翔)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샘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철학이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記述)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전통뿐만 아니라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과학과 철학의 차이점을 유추의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비상(飛翔) 새 따위가 하늘을 날.
- 발원하다 근원이 시작되다.

16 ㉠에서 유추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이 전깃줄이고 과학이 그 전깃줄을 따라 흐르는 전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전등불과 같다.
- ② 철학이 철도를 따라 운행하는 기관차이고 과학이 객차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객차의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여행객과 같다.
- ③ 철학이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는 배이고 과학이 그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다.
- ④ 철학이 자갈밭을 걸어가는 두 다리이고 과학이 앞 길을 살피는 두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두 다리에 실려 가는 몸통과 같다.
- ⑤ 철학이 광맥을 찾아 나가는 탐사대이고 과학이 그 광물을 채굴하는 광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광물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소비자와 같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에 맞게 유추한 예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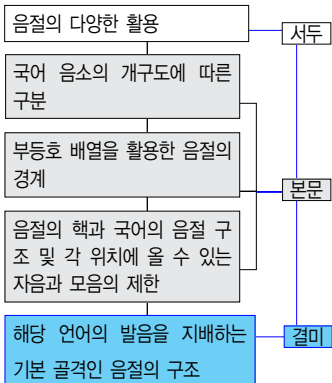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 철학, 과학, 우리의 삶을 3단계의 순서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다른 유추의 예에서도 3단계의 순서 관계라는 속성이 있어야 한다. ⑤는 철학을 제일 앞인 탐사대에, 과학을 두 번째인 광부에, 맨 끝인 우리의 삶을 소비자로 비유하고 있어 알맞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3단계의 순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적합하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 - 기상대 - 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ㅌ)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ㅗ, ㅜ, ㅡ, ㅑ)은 4도, 중모음(ㅓ, ㅕ, ㅗ, ㅛ)은 5도, 저모음(ㅔ, ㅓ)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	ㄷ	ㄱ	ㅇ	ㄷ	ㅁ	ㅌ	ㄴ
개구도	0	5	2	0	6	2	4
부등호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ㄱㅇㄷㅁㅌㄴ'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 모음 + (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n]'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n]'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스, ㅍ, ㅊ'이면 모음 'ㅏ, ㅑ, ㅓ, ㅕ'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m]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ŋ]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 음절의 다양한 활용을 소개하고 개구도를 이용한 음절의 경계를 설정한 다음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음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음소 :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 하나 이상의 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 개구도 : 자음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절을 정의할 때, ㄱ~ㄹ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 보기 |

음절은 개구도가 (ㄱ) 모음을 핵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ㄴ) 자음이 각각 (ㄷ) 까지 올 수 있는 (ㄹ) 의 최소 단위이다.

	ㄱ	ㄴ	ㄷ	ㄹ
①	작은	큰	하나	발음
②	작은	큰	둘	글자
③	큰	작은	하나	발음
④	큰	큰	둘	글자
⑤	큰	작은	하나	글자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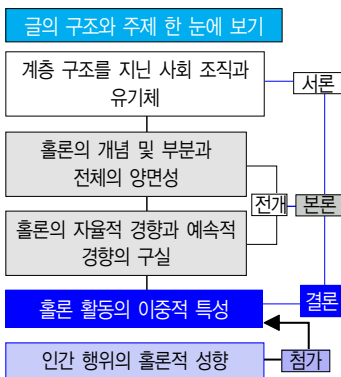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ㅌ)은 1도, 비음(ㅁ, ㄴ, ㅇ[n])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ㅗ, ㅛ, ㅜ)은 4도, 중모음(ㅐ, ㅑ, ㅓ, ㅕ)은 5도, 저모음(ㅐ, ㅓ)은 6도가 된다는 구절로 보아 모든 모음은 자음보다 개구도가 크므로 ㄱ에는 ‘큰’이 들어간다. 또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라는 구절로 보아 ㄴ에는 ‘작은’이 ㄷ에는 ‘하나’가 들어간다. 또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라는 구절로 보아 음절의 끝소리가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ㄹ에는 ‘발음’이 들어간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구절과 어긋난 내용이다.

✓ **해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홀론의 두 가지 성향을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개념을 밝히고 있다.

이휘·클리닉

- 역동적 힘 있게 움직이는.
- 청사진 어떤 사물에 대한 ‘설계도·미래상’ 등을 상징하여 이르는 말.

사회 조직이나 살아 있는 유기체는 여러 단체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생물체를 보면 개체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은 조직으로, 조직은 세포로, 세포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자나 소립자와 같은 더 낮은 차원으로 가지쳐 내려가서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계층 구조의 각 구성 요소들을 홀론(holon)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상위 단계를 구성하는 부분인 동시에 하위 단계를 통합하고 있는 전체다. 다시 말하면,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부분인 야누스*적 실체다. 위를 보고 있는 얼굴은 보다 높은 단계에 소속된 부분으로서의 홀론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은 낮은 단계를 통합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홀론이다.

이것은 모든 홀론이 두 가지 성향, 즉 자율적 경향과 예측적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 경향은 독립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홀론의 전체성이라 하고, 홀론의 부분성을 의미하는 예측적 경향은 복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홀론이 갖는 이러한 양면성이 역동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계층 구조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해지면 균형이 무너진다. 홀론의 자율적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전체의 구속을 벗어나게 된다. 반면에 예측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것은 전체의 노예가 된다.

홀론의 활동은 고정된 법칙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동시에 다양한 선택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도 주어진다. 생명체들은 이러한 법칙과 전략에 따라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꿀벌의 집짓기나 누에의 고치짓기와 같은 본능적 행위들은 유전자의 청사진이라는 고정된 법칙을 따르면서도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개인이나 가족, 사회, 국가도 일종의 사회적 홀론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전통, 관습, 규칙 등 여러 가지 지배 법칙 아래서 행동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언어 사용과 같은 습득된 행동은 문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우리는 발음, 어휘, 문장 구조 등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한다.

* **야누스(Janus)**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

18 윗글의 내용에 따라 ‘홀론’을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 것은?

- ① 홀론은 안정을 이루는 역동적 평형 상태이다.
- ② 홀론은 고정된 법칙과 선택적 전략에 따라 행동한다.
- ③ 홀론은 예측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갖는 계층 구조의 구성 요소이다.
- ④ 홀론은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부분인 야누스 같은 실체다.
- ⑤ 홀론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는 사회 조직 또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개념의 올바른 정의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홀론은 자율적 경향과 예측적 경향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자율성, 예측성을 홀론의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계층 구조의 각 구성 요소들을 홀론(holon)이라 한다고 했으므로 유개념은 계층 구조의 각 구성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③이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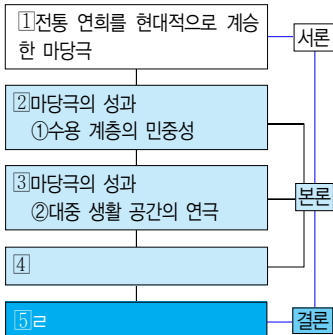
● **오답 배제기** ①은 홀론의 성질만 서술하고 있어 부적합하며, ②는 홀론의 행동 체계만을 서술하고 있어 부적합하다. ④는 야누스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어 부적합하며 ⑤는 사회 조직, 유기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어 부적합하다.

✓ **해답** ③

문제해결

한국 연극과 마당극, 극예술연구회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마당극은 근대 이전의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가장 한국적인 연극 양식이다. 이는 우리의 근대극이 서양의 근대극의 이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의 반성으로 시작된 것이면서, 탈춤 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연행 원리를 계승하고 그를 현대화한 것이다. 더욱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적 연극 양식으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던 탈춤이 1970년대 들어 마당극이라는 형태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마당극은 그 원리는 전통극에서 빌어 왔지만, 실제적 성격은 가장 현대적이라 할 수 있다. 마당극이 탄생 가능했던 가장 직접적 계기들은 1950~60년대의 전통 논의의 활성화와 반사실주의 연극의 경향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마당극 또한 그러한 새로운 흐름 가운데 가장 적극적 양상을 띤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마당극은 하나의 운동 형태를 띠면서 대학가에서 시작하였지만, 그 주체들의 민중 지향성 속에 점차 민중층의 연극으로 이행해 갔다. 그리하여 아주 폭넓은 수용 계층을 갖는 연극이 되었다. 정치적 맥락에서 민중적 성격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연극이 이처럼 민중에게 사랑 받고 민중층 속에서 성장한 적도 없었던 것을 보면 수용 계층의 민중성 역시 마당극이 지닌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특히 마당극 공연과 함께 진행된 연극 교육의 활성화 작업은 연극과 대중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귀중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춘극’이나 ‘생활 연극’, ‘두레패 활동’ 등으로 명명된 일련의 활동은 대중 스스로 연극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연극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여 연극 문화의 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극장 공연 중심의 연극 문화를 대중의 생활 공간에서의 연극으로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④ 20세기 전반기의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 해방 이후의 분단 체제의 고착과 정치적 독재로 이어지는 억압적 현실 속에서 그러한 현실의 변혁과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연극 활동이 진보적 연극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해방 이전에는 주로 카프르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열의 극단들이 그러한 진보적 연극을 주로 담당했었다. 진보적 연극의 흐름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다가, 민주화 투쟁이 발전하면서 1970년대 이후 마당극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된다. 이 때문에 마당극을 ‘정치극’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실제의 마당극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치극과는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그보다는 억압 체제 하에서의 민중의 제반 현실에 대한

- 마당극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그 성격을 밝히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연행 연극화함.
- 고착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음.

폭넓은 관심을 보여 온 것이 마당극이다. 물론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마당극도 상당수 있지만, 그것은 넓은 의미의 민중적 현실에 대한 형상화와 그 극복의 전망을 담고자 한 데서 온 자연스런 결과이지 특정 이데올로기에 고착된 형태의 것은 아니었다. 그 점에서 1920~30년대의 카프 연극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마당극은 1970~80년대 주로 제도권 연극의 밖에서 일종의 ‘재야연극’으로 존재해 왔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위치 때문에 독특한 연극 미학을 발전시키면서 가장 한국적이고 민중적인 연극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시대의 지배적 연극 양식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도 교육에서도 마당극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천의 마당극 축제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마당극의 활성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문제

01 위 글은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 ① 한국 연극에서 마당극의 위치는 어떠한가?
- ② 마당극은 정치극과 어떻게 다른가?
- ③ 한국 연극이 걸어온 길은 어떠한가?
- ④ 한국의 연극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⑤ 마당극의 유래는 무엇인가?

02 다음 중 마당극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치성 ② 현대성
③ 민중성 ④ 대중성
⑤ 전통성

03 다음 중 위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 ① 예술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 ② 대학은 민중을 대표한다.
- ③ 마당극은 학교 교육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 ④ 예술에 있어 한 시대의 지배적 양식은 없다.
- ⑤ 연극에 있어서는 관객보다 연출자의 성격이 중요하다.

04 위 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위 글만 가지고는 진보적 연극의 전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 ② 마당극이 대중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시되면 좋겠어.
- ③ 마당극이 부활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으면 좋겠어.
- ④ 애매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면 좋겠어.
- ⑤ 앞으로의 과제가 제시되면 좋겠어.